

#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본격 추진

## 시-민주당 전북도당 대통령 공약 이행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주시민의 약속인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이행을 위해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시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수 시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대선 공약들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에 협력을 당부했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주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평균 득표율(41.08%)보다 26%p나 높은 66.89%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것은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 핵심 공약인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의 경우 중앙선관위 선거공약집과 '문재인 1번가'에도 포함된 문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그간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돼 왔던 전북이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전북이 보훈교부세를 관



전주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주당 전북도당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등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잡고 있다.

역사가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 최대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적게 지원을 받아왔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및 재원배분이 이뤄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행정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전주민의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전북혁신도시의 연금급

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기관 승격,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전주역사 전면개선, 국립 독립영화의 전담건립, NPS(국민연금공단) 복지플렉스센터 건립 등 전주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도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늘 이자리는 공약이 실현하는 공약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조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력했던 지역"이라며, "전주 관련 공약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풍부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관련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칭'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각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 기차 운행 멈춰선 폐역, 녹색 쉼터로

### 전주시, 아중역 주변에 시티가든 조성

전라선 복선화 철도사업으로 인해 기차가 운행되지 않은 아중역(폐역)주변이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녹색 쉼터로 탈바꿈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아중역 주변을 녹지와 휴식공간 등을 갖춘 시티가든으로 조성했다.

전주시는 이곳에 팔배나무와 꽃복숭아, 공조팝나무, 매자나무 등 나무 14종 5,800여 그루와 역대 등 51종 3,900여본을 식재하고, 경관블럭 쌓기와 계단 설치 등을 통해 인근주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중역 주변 시티가든 조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녹색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정원 문화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과 첫 마중길, 아중역 시티가든,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 아중호수공원, 한옥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 동부권 생태·힐링 관광코스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지식서비스분야 청년창업 지원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 창업아카데미 2기 교육생 모집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6월 16일까지 '스마트창업아카데미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마트창업아카데미는 전주시가 지원하는 스마트창업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창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2기 과정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한 지식서비스분야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초기 아이템 발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기업가정신 및 분야별 집중 멘토링까지 창업 준비를 위한 필수 창업스킬과 사업화 실천단계에 필요한 교육을 약 10회에 걸쳐 총 50시간동안 제공한다.

특히, VR(가상현실) 창업교육과 미래트렌드 분석 교육을 제공해 교육생들의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는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스마트창업자 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스마트창업아카데미 1기 과정에서는 총 20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수료생들은 체험형 교육과 집중 멘토링을 통해 창업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완성해 실천사업화 준비를 마쳤다.

한기택 1기 수료생 대표는 "스마트창업아카데미를 통해 막연했던 창업의 꿈을 구체화하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었다"며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는 다른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업의 창출이 창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신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063-281-41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전주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자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 양귀비 재배 주민들 입건

익산경찰서는 29일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으로 김모(60)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익산시 신용동 소재의 자택에서 양귀비 456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경찰에게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서도 삼박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 다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군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임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회현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64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에서 "양귀비인 줄 모르고 꽃이 예뻐 길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부안 학폭 · 성추행 발생... 학생보호책 겹돌아

### 상서면 A중 교사 성추행 · 부안 동초 교사 폭행 등 잇따라

### 부안교육청 대책, 돌발상황 대처만 급급... 교육현장 쇠신 요구도

최근 부안지역에서 심각한 폭력 및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부안교육청의 인일한 태도와 학생 보호 대책이 겹돌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안 상서면 A중 교사가 학교 내 복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 후 내사 종결 처리 방침이고, 부안동초등학교 B교사는 C학생에게 길이 50cm의 가르침대(지휘봉형식)를 던져 코뼈가 부러진 사건으로 현재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부안의 한 사설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을 상대로 얼굴에 상해를 입혀 말뚝이 되고 있고, 부안D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싸움을 벌여 학교에서 자체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부안교육현장이 각종 사건으로 얼룩지면서 총체적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안 교내에서 각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부안교육청의 대책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에만 급급할 뿐 별다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 성추행에 이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 학교 폭력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교육현장의 전면적인 쇠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안교육지원청의 한 과장은 학교별로 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난주에도 교장·교감연찬회시 필

수적으로 타 시·군교육지원청 사례를 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 여성 3년 스토킹한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29일 여성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이모(27)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군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A씨를 수년간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5,000건 이상 상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연락을 피하자 이씨는 술집에도 쫓아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